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과 문해활동 비교 분석 연구

— 총체적 언어접근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mparison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Beliefs on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and Their Literacy Practices

송승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Song, Seung-Mi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mothers' and teachers' beliefs on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by comparing their beliefs with the whole language approach. Also, their literacy practices at home and in the classroom were compared and how their literacy beliefs and practices were related was investigated. 176 mothers and 72 daycare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Kyunggi-do.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 fathers' education and family income mostly predict the mothers' literacy beliefs. Also the teachers' age, education, and their learning experiences with the whole language approach are the main predicting variables in the teachers' beliefs. In practices, the mothers' age, number of children, and fathers' education are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ing the mothers' practices. The teachers' age, education, interest about the whole language approach, learning experience, and number of children in the classroom are independent variables into the teachers' practices. Overall, teachers showed a higher level of beliefs on the whole language approach and did more literacy practices than the mothers.

Keywords : whole language approach, literacy, teachers' beliefs, mothers' beliefs

I. 서론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이며, 정보의 교환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문해교육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어를 도구화하여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문해습득 자체 뿐 아니라 학령기 학업성취를 위한

도구로써 유아를 위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학령 전기 유아에 대한 교육에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문해능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언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효과적인 언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에서 효과적인 문해습득을 위한

* Corresponding author: Song, Seung-Min
Tel: 031-220-2597, Fax: 031-220-2189
E-mail: smsong@suwon.ac.kr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면, 1920년대 이후에는 Gesell의 성숙주의 영향으로 유아가 준비된 적절한 시기에 언어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조기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위영희, 2004). 그러나 1960년대 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구조화된 학습경험은 조기 문해습득을 가능하게 하며, 체계적 문자 지도방법이 성숙보다 문해발달에 더욱 중요하다는 행동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이차숙, 노명완, 1995). 행동주의적 관점에 따라 문해교육은 가장 쉬운 수준부터 가르치는 위계적 교수방법이 이루어졌다. 행동주의의 영향은 1970년대 발생적 문식성의 개념과 총체적 언어접근이 대두되면서 바뀌어졌다. 발생적 문식성의 개념에 의하면 유아는 문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Clay, 1975), 유아의 언어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다(Goodman, 1986). 발생적 문식성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면서 전통적 언어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총체적 언어접근이 발전하였다(유승연, 2000). 전통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의 기본 단위가 분절된 요소가 아닌 의미의 덩어리이며, 언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총체성의 원리(이차숙, 노명완, 1995; 제경숙, 2002)를 주장한다. 이러한 총체적 언어 접근은 전통적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교사의 경험에서 나온 현장 중심의 교수방법이다.

총체적 언어접근에서는 유아의 문해발달은 주변환경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Hartste, Woodward, & Burke, 1984; Teal & Sulzby, 1986), 친숙한 인쇄물이나 간판, 대중 매체 등을 통한 경험으로 언어의 규칙을 인지, 습득하며 말하기, 듣기와 함께 문해발달이 이루어진다(Teal & Sulzby, 1986; Freeman & Hatch, 1989). 이에 비해 전통적 언어접근은 철자, 음소, 단어들과 같은 문자를 발음으로 해독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철자-발음 지향적 관점이다(김명순, 1999; 위영희, 2004; 홍인숙, 2001). 읽기 및 쓰기 학습 전에 그에 필요한 선행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준비도의 관점에 따라, 초보적인 읽기 및 쓰기 기능에 관해 가르치면서 점차적으로 성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문해습득의 과정으로 보았다.

전통적 언어접근은 작은 단위를 학습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상향식 신념체계로써,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낱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 이전 단계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

다(송승민, 임애련, 2005). 이에 반해, 총체적 언어접근은 유아가 문어 습득이 구어의 습득과 같은 이유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서 시작된다(Sulzby, 1985)고 보았다.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경험하는 다양한 문해 활동을 통해 문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 방향이 전통적 언어접근과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총체적 언어접근은 의미를 담은 내용의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향식(Top-down) 신념 체계이며, 낱글자의 단순 암기를 통한 문해습득을 주장하는 전통적 언어 접근은 상향식(Bottom-up) 신념 체계이다.

총체적 언어접근은 전체 교육과정, 교실, 가정, 주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아의 일상생활의 일부로써(제경숙, 2002), 유아교사와 부모 간의 교육적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송승민, 임애련, 2005). 총체적 언어접근의 근본적인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 상호간의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선행될 때 유아에 대한 총체적 언어교육이 일상생활 및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언어접근에 대한 문제제기로 총체적인 언어접근이 출현한 이후에, 총체적 언어접근의 현장 적용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적 언어교육 방법이 나타났다. 이는 두 관점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통적 접근과 총체적 접근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김정화, 이문정, 2006). 실제 교실에서는 이러한 접근들이 명백히 구분되어져서 절대적으로 한 방법만이 한 교실에서 교수되어진다고 할 수 없고, 부모와 교사의 문해 습득에 대한 신념이 세 접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균형적 언어접근은 전통적 언어접근과 총체적 언어접근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 세 가지 접근은 연속선상에 위치 한다(김정화, 이문정, 2006). 결국 양극단에 전통적 언어접근과 총체적 언어접근이 위치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두 관점에 대해 교사와 부모의 문해신념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알아보고 교사와 부모가 가진 문해습득에 관한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며, 그들이 가진 신념은 실제 문해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해지도는 유아의 초기 문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문해발달에 대한 연구들(DeBaryshe, 1995; Senechal,

Lefevre, 2002; 권희경, 송진숙, 2000)은 부모의 문해지도가 유아의 초기 문해습득과 상관관계가 있고, 가정 내 문해활동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문해발달에 대한 부모의 태도임을 입증해왔다. 아동이 경험하는 문해 관련 경험과 환경은 문해습득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Kurkjan, 1994). Schickemdzan(1986)는 부모가 자녀와의 읽기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책 읽기 활동을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문해습득에 대한 태도가 가정에서 제공하는 읽기 및 쓰기 활동과 관계가 있어서 유아의 문해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권희경, 송진숙, 2000; 송승민, 임애련, 2005), 부모의 신념을 이해하는 것은 유아의 문해습득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의 신념에 관한 최근 연구는 교사의 신념을 분석하여 구조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윤혜영, 1997; 조정숙, 1997; 유승연, 2000; 정숙경, 2001a; 정숙경, 2004). 유승연(2000)은 총체적 언어접근의 실천을 위해서 교사의 철학에 근거한 신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의 연구가 교사의 효과적인 교과지도를 위해서 교사의 신념 연구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의 신념은 교사의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을 이해하는 것은 교수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의 신념을 이해하고,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부모와 교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이를 비교하여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문해습득 과정과 교수원리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특히 보육기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되어지고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 문해습득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신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원아들을 위한 언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와 부모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총체적 언어접근을 중심으로 문해의 교수원리 및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정과 교

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해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신념에 대해 이해를 넓히며 바람직한 연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문해습득에 관한 연구는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교사의 신념에 관한 연구(유승연, 2000; 장영숙 외 2004; 정숙경, 2001a; 정숙경, 2004), 총체적 언어접근 활동이 유아의 문해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서혜정, 1997; 이성은, 황영미, 2003; 이항재, 한복연, 2000; 조정옥, 이달석, 2002), 총체적 언어 접근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유승연, 1998; 이성은, 오은순, 2002; 정숙경, 2001b),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관한 연구(송승민, 임애련, 2005)가 이루어져 왔다.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부모의 신념을 비교한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현장에서의 연계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신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관한 신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변인(모 연령, 모 교육수준, 부 교육수준)과 가정변인(자녀 수, 가정수입) 중에서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및 가정에서의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인은 무엇인가?
2.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과 교사의 배경변인(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관심 및 학습 경험, 담임유아연령, 담임유아수) 중에서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 및 교실에서의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인은 무엇인가?
3.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4.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은 문해활동과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 W시 및 O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부모 총 176명과 어린이집 교사 72명이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응답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정의한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4.66세이고, 교육 수준은 고졸 43.18%, 전문대 졸업 21.02%, 대학교 졸업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모의 교육수준	중졸	1	.57
	고졸	76	43.18
	전문대졸	37	21.02
	대졸	55	31.25
	대학원 이상	5	2.84
	무응답	2	1.14
	합계	176	100.00
부의 교육수준	중졸	1	.57
	고졸	46	26.14
	전문대졸	38	21.59
	대졸	68	38.64
	대학원 이상	20	11.36
	무응답	3	1.70
	합계	176	100.00
부의 직업	자영업	30	17.05
	공무원	23	13.07
	무직	4	2.27
	생산/기술/서비스직	43	24.43
	사무직	33	18.75
	전문/관리직	22	12.50
	기타	18	10.23
	무응답	3	1.70
	합계	176	100.00
모의 직업	전업주부	96	54.55
	자영업	9	5.11
	공무원	12	6.82
	무직	1	.57
	생산/기술/서비스직	15	8.52
	사무직	9	5.11
	전문/관리직	18	10.23
	기타	14	7.95
	무응답	2	1.14
	합계	176	100.00
	가정의 월 총 소득	100만원 미만	3
100만원~200만원		18	10.23
200만원~300만원		47	26.70
300만원~400만원		55	31.25
400만원~500만원		30	17.05
500만원 이상		18	10.23
무응답		5	2.84
합계		176	100.00

<표 2> 어린이집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교사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교사의 학력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18	25.00
	전문대 졸	29	40.28
	대졸	24	33.33
	대학원 이상	1	1.39
	합계	72	100.00
교사의 경력	3년 미만	29	40.28
	3년 이상~5년 미만	16	22.22
	5년 이상~10년 미만	17	23.61
	10년 이상	8	11.11
	무응답	2	2.78
	합계	72	100.00

이 31.25%,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2.84%였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26.14%, 전문대 졸업 21.59%, 대학교 졸업 38.64%, 대학원 이상 학력이 11.36%였다.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업 주부인 어머니는 54.55%이었고, 취업모의 경우 전문/관리직, 생산/기술/서비스직, 기타, 공무원, 자영업, 사무직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는 생산/기술/서비스직, 사무직, 자영업, 공무원, 전문/관리직, 기타의 순으로 직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무직과 무응답이 3.97%였다. 가정의 월 총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1.7%,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10.23%,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26.70%,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31.25%,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17.05%, 500만원 이상이 10.23%로 분포하며 이는 조사 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각 계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1.99세이고, 25%의 교사가 보육교사 양성원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75%의 교사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경력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40.28%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22.22%,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34.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에서 58.33%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과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에는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

습 경험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양성 과정과 보수교육을 통해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어머니와 교사의 언어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Yoo(1996)가 개발한 유아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 신념(Teachers' Beliefs Related to Children's Literacy)이라는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Yoo(1996)가 개발한 TBRCL 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12문항과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와 교사가 모두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은 15문항으로,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은 11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측정 도구를 개발한 Yoo(1996)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 수준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체적 언어신념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총체적 언어에 대한 동의정도가 크고, 전통적 언어신념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비동의정도가 크다(유승연, 2000). 본 연구에서도 측정 도구의 개발자와 같이 전통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고, 총체적 언어신념을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총점이 클수록 문해습득에 대한 관점 중 총체적 언어 접근에 대한 신념이 높다고 해석한다.

가정 및 교실에서 행하는 문해활동에 관한 질문은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말하기 및 듣기에 관한 활동을 묻는 4문항, 읽기활동을 묻는 4문항, 그리고 쓰기 활동을 묻는 4문항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문해활동에 관한 문항은 송승민과 임애련(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해활동의 빈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해활동을 자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도 조사를 위해 55명의 어머니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문항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3 이었다. 예비조사 이후에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의 조사는 Cronbach alpha .72, 교사 대상의 조사는 Cronbach alpha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도 조사를 실시한 후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임의 표집을 위해 설문지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허락한 어린이집에

배부하였다. 경기도 W시 및 O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18 곳을 통해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110부 중 91부를 회수하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7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어린이집 중에서 5곳에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1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34를 제외하고 17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포함하는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t-test를 사용한 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을 예측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어느 독립변수도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모든 변수들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교사의 경우 담임 반 아동의 연령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지만, 부모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독립변수에서 빠진 이유는 가정마다 0세에서 5세 사이에 포함되는 아동의 수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서 독립변수로 채택하지 않고 자녀의 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1. 부모변인과 가정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태도 및 가정에서의 문해활동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 변인과 가정 변인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자녀 수, 아버지 교육수준, 그리고 가정 소득수준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변인과 가정변인들의

<표 3> 부모변인과 가정변인,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해활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총체적 언어신념 $\beta(t)$	듣기/말하기 $\beta(t)$	읽기 $\beta(t)$	쓰기 $\beta(t)$
모 연령	1.88*** (t = 13.97)	.20*** (t = 6.39)	.25*** (t = 7.92)	.30*** (t = 9.63)
모 교육수준	2.16* (t = 1.75)	.45 (t = 1.58)	.37 (t = 1.30)	.41 (t = 1.43)
자녀 수	.62 (t = .46)	-.66** (t = -2.12)	-.71** (t = -2.27)	-.39 (t = -1.25)
부 교육수준	1.99* (t = 1.76)	.56** (t = 2.16)	.43* (t = 1.65)	.01 (t = -.04)
소득수준	2.04** (t = 2.42)	-.25 (t = -1.32)	.06 (t = .32)	-.17 (t = -.86)
F값 R ²	1,886.59*** .99	291.91*** .95	463.66*** .97	488.06*** .97

* $p < .1$, ** $p < .05$, *** $p < .01$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가지 변인(모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문해습득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어머니 본인의 특성 및 가정의 특성이 유의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 총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은 총체적 언어접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은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듣기·말하기 및 읽기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듣기·말하기 및 읽기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배경 변인에 따른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태도 및 문해활동

문해 습득에 관한 교사의 신념과 실제 문해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사의 총체적 언어신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배경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가지 변인(교사 연령, 교사의 교육 수준, 총체적 언어접근에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배경변인,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해활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총체적 언어신념 $\beta(t)$	듣기/말하기 $\beta(t)$	읽기 $\beta(t)$	쓰기 $\beta(t)$
교사연령	1.03*** (t = 4.88)	.10*** (t = 2.71)	.14*** (t = 3.79)	.10*** (t = 2.71)
교사 교육수준	11.38*** (t = 5.31)	.92** (t = 2.45)	1.45*** (t = 3.89)	.95** (t = 2.60)
교사 경력	-.33 (t = -.66)	.05 (t = .51)	-.04 (t = -.45)	-.04 (t = -.44)
총체적 언어신념에 대한 관심	1.35 (t = .36)	-.04 (t = -.07)	-.07 (t = -.11)	2.03*** (t = 3.19)
학습 경험	16.87*** (t = 3.77)	2.10*** (t = 2.67)	2.20*** (t = 2.82)	.84 (t = 1.10)
답임 원아의 연령	2.42 (t = 1.62)	.41 (t = 1.58)	.27 (t = 1.06)	.22 (t = .85)
답임 원아 수	.55 (t = 1.56)	.03 (t = .54)	.15** (t = 2.43)	.10* (t = 1.73)
F값 R ²	386.64*** .978	132.84*** .940	236.03*** .965	183.21*** .955

* $p < .1$, ** $p < .05$, *** $p < .01$

대한 학습경험, 답임)이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문해 습득에 관한 교사의 신념은 교사 본인의 특성과 학습 경험이 반영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답임 영유아의 특성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총체적 언어접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문해활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연령과 교사의 교육수준이 문해활동의 전 영역에 대해 그들의 실제 문해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이 높고, 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쓰기 활동의 빈도가 많아지고, 총체적 언어에 대한 학습경험이 있으며 듣기·말하기와 읽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임 유아의 특성에서는 답임 유아의 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서, 유아 수가 많을수록 읽기와 쓰기 활동이 많아졌다.

3.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 차이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과 실제 문해활동 동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표 5>는 총체적 언어신념을 중심으로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과 문해활동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위와 같이 응답의 총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교사의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의 신념이 어머니의 신념보다 총체적 언어 신념에 가까웠으며, 쓰기를 제외한 듣기·말하기와 읽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총 26문항 중에서 6문항에 대

<표 5> 어머니와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과 실제 문해활동 차이

	평균		평균차이
	부모	교사	
총체적언어신념	133.20	136.71	-3.51** (t = -2.16)
듣기/말하기	7.91	9.38	-1.47*** (t = -3.96)
읽기	10.09	12.31	-2.22*** (t = -7.12)
쓰기	10.33	10.69	-.36 (t = -1.22)

* $p < .1$, ** $p < .05$, *** $p < .01$

<표 6>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 간 신념 차이가 유의하게 큰 문항들

문항	부모		교사		평균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이들의 쓰기는 글자와 단어, 학습지를 통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배울 수 있다.	3.65	.76	3.42	.93	.24* (t=1.92)
읽고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반복과 암기는 중요하다.	3.53	.97	3.15	.97	.38*** (t=2.76)
아이들은 보고 쓰기 혹은 베끼기를 통해 글자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3.22	1.05	2.90	1.08	.31** (t=2.11)
교사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이야기 책을 읽어주어야 한다.	4.20	.87	3.90	.82	.30** (t=2.47)
아이들은 학습지를 통하여 글자를 배워야 효과적이다.	2.62	1.05	2.21	.89	.41*** (t=3.14)
발음과 철자 중심의 반복적 읽기 학습은 아이들이 읽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3.46	.83	3.11	1.00	.35*** (t=4.64)

* $p < .1$, ** $p < .05$, *** $p < .01$

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6문항 중에서 유의하게 신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 중에서 응답의 평균차가 가장 큰 문항을 알아보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문해습득을 위한 반복과 암기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읽고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반복과 암기는 중요하다’, ‘아이들은 학습지를 통하여 글자를 배워야 효과적이다’, ‘발음과 철자 중심의 반복적 읽기 학습은 아이들이 읽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세 문항에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또한 ‘아이들은 보고 쓰기 혹은 베끼기를 통해 글자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문항($p < .05$) 및 ‘아이들의 쓰기는 글자와 단어, 학습지를 통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배울 수 있다’($p < .1$)는 문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들은 교사에 비해서 반복과 암기를 통한 문해습득에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20개의 문항에서 교사와 부모의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문해활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상관관계 분석분석을 위한 계수로 Spearman's ρ 를 사용한 이유는 분석대상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 Pearson 누적상관계수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방법인 Spearman's ρ 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Doane, Seward, 2009).

<표 7>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해활동과의 관계

Spearman's ρ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총체적 언어 신념	.0875 ($p = .248$)	.2175*** ($p = .004$)	-.0485 ($p = .523$)

* $p < .1$, ** $p < .05$, *** $p < .01$

<표 7>에 의하면 어머니의 총체적 언어신념은 읽기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5.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문해활동과의 관계

교사가 가진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상관관계 분석분석을 위한 계수로 Spearman's ρ 를 사용한 이유는 <표 7>에서의 이유와 동일하다.

<표 8>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교실에서의 문해활동과의 관계

Spearman's ρ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총체적 언어 신념	.2263* ($p = .05$)	.4890*** ($p = .00$)	.1927 ($p = .11$)

* $p < .1$, ** $p < .05$, *** $p < .01$

<표 8>에 의하면 교사의 총체적 언어신념은 읽기활동과 가장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듣기/말하기 활동과도 관계가 있었다($p < .1$).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 및 실제 가정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을 조사하여 문해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육현장의 연계도를 포함함으로써 언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부모와 교사의 배경 변인 중에서 그들의 신념과 실제 가정에서의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보고, 신념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정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된 문해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부모와 교사가 상대방의 문해교육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정과 교실의 교육적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문해습득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가지 변인(모 연령, 소득수준, 모 교육수준, 부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의 월 총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총체적언어신념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류층 가정일수록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이 높고(Ball & Blachman, 1991), 어머니의 문해능력이 발전적 문해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DeBaryshe, 1995)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연령에 대한 결과는 육아 경험이 많아 질수록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총체적이 되어 감을 보여준다. 이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전통적 교수방법의 대안으로 좀 더 흥미 있는 교수방법을 제안한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어진 운동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하며, 어머니들의 육아 경험이 그들의 신념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가지 변인(교사 연령, 교사의 교육 수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경험)이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경험이 있으면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더욱 총체적 언어접근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교사의 총체적 언어교육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장영숙, 최미숙, 황운세, 2004; 김정화, 이문정, 200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정화와 이문정(2006)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서 의미중심의 언어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절반 정도의 교사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직무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지도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통적 언어교육, 총체적 언어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지도 방법이 보육교사 양성원 및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소개되어져야 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한 언어지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직무교육을 통해 경력 교사들에게 새로운 언어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에 대해 유의한 독립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수, 부의 교육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의 문해활동이 유의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듣기·말하기와 읽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 환경에 대한 홍인숙(2001)의 연구결과 역시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총체적 언어접근의 실천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Smith(1996)도 중단연구를 통해 중류층 가정의 책읽기 활동의 빈도가 하류층 보다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문해활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듣기·말하기와 읽기 활동을 빈번하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교사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 변인은 교사의 연령, 교육수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관심 및 학습경험, 그리고 담임 유아의 수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문해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언어에 대한 관심은 쓰기활동에 대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총체적 언어에 대한 학습경험이 있으면 듣기·말하기, 읽기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담임 유아의 특성으로는 담임유아의 수가 읽기 및 쓰기 활동과 관계가 있었다. 담임 유아의 수가 많을수록 읽기 및 쓰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반 담임교사일수록 문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 변인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와 교사의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인은 연령이었다. 어머니와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총체적 언어신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해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 공통된 것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문해활동을 빈번하게 제공하고,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해활동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와 교사의 문해신념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총체적 언어에 가까울수록 읽기 활동($p<.01$)에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신념은 읽기($p<.01$)와 쓰기($p<.1$)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가진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읽기 활동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 정도가 높을수록 책 읽어주기, 아이가 쓴 글자 읽어보기, 동화 읽고 이야기하기, 실제적 상황이 담

긴 동화읽기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송진숙, 송승민, 2006).

여섯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문해습득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교사의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신념이 더욱 총체적에 가까웠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가진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이 발현적 문식성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발달적으로 적합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나(김명순, 권희경, 2002), 26개 문항 중 20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교사의 신념과 부모의 신념이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어머니의 응답 중 가장 총체적이었던 문항들은 ‘언어는 아이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언어를 가르칠 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따로 분리하기 보다는 상호 관련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효과적으로 읽기를 배울 수 있다’, ‘교사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이야기책을 읽어주어야 한다’, ‘매일 아이들에게 자신이 읽을 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때마다 격려해준다’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주도적 활동 및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적인 발달에 대해 어머니들의 높은 신념을 보인 송승민과 임애련(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문항과, 스스로 이야기책을 선택해야 효과적이며, 매일 스스로 책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문항 등 4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 역시 가장 높은 신념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교사와 부모 모두 유아의 흥미에 기초한 주도적인 읽기 활동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글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사가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책을 읽어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사의 신념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당사자인 교사의 부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6개의 문항 중에서 6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0 문항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문해습득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문해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가정과 기관의 연계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쓰기교육에서의 반복과 암기에 대한

문항들에서 교사와 부모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다음처럼 문해습득을 위한 반복과 암기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읽고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반복과 암기는 중요하다’, ‘아이들은 학습지를 통하여 글자를 배우야 효과적이다’, ‘발음과 철자 중심의 반복적 읽기 학습은 아이들이 읽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세 문항에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어머니와 교사 모두 학습지를 통한 글자 교육에 대해 보통 이하의 신념을 보였지만 교사에 비해서 어머니들의 신념이 높게 나타났고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이들은 보고 쓰기 혹은 베끼기를 통해 글자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문항($p<.05$) 및 ‘아이들의 쓰기는 글자와 단어, 학습지를 통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배울 수 있다’($p<.1$)는 문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들은 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복과 암기를 통한 쓰기교육에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문해활동에서도 듣기·말하기와 읽기는 교사가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1$) 쓰기활동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화와 이문정(2006)의 연구에서도 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기술적인 언어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신념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요구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기관에서 부모들의 이러한 신념에 따른 요구로 학습지 형태의 문자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고, 혹은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신념으로 지나치게 철자교육을 배제시키는 교사가 간혹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쓰기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이 가장 큰 만큼 이에 대한 부모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해습득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신념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쓰기교육에 대한 신념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복과 암기를 통한 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교사의 신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만큼 이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바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아를 위한 적절한 쓰기활동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와 교사가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언어접근 뿐 아니라 다양한 문해지도 방법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교사 양성과정 뿐 아니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에서도 다양한 언어교수방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와 교사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과 실제 문해활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교사의 거주지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되어 가정에서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회수율이 낮고, 불성실한 응답이 많았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 등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외되었는데,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연구자의 입회하에 설문이 이루어진다면 회수율을 높이고, 불성실한 응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실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활동의 빈도조사가 교사와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로 인한 빈도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는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총체적 언어접근, 문해, 교사 신념, 어머니 신념

참 고 문 헌

- 권희경, 송진숙. (2000). 걸음마기 및 유아기 부모들의 발생적 문식성에 대한 태도와 가정에서의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13.
- 김명순. (1999). 4-5세 아동의 읽기·쓰기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환경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3, 120-131.
- 김명순, 권희경. (2002).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문해 발달에 대한 태도 및 가정 문해환경. *대한가정학회지*, 40(1), 147-161.
- 김정화, 이문정. (2006). 유아의 문식성 습득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37-251.
- 서혜정. (1997). 동시를 통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유아의 읽기 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민, 송진숙. (2006). 문해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에서의 실제 문해행동 연구: 창안적 글자쓰기와 총체적 언어접근법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107-123.
- 송승민, 임애련. (2005).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 신념과 가정에서의 실제 문해활동과의 관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01-409.
- 유승연. (1998). 총체적 언어접근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서의 포트폴리오(portfolio)의 활용. 유아교육논집, 2(2), 133-157.
- 유승연. (2000).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사의 신념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1(1), 201-214.
- 윤혜영. (1997). 총체적 언어접근에서의 문식성 발달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희. (2004). 유아문해교육에 대한 접근방법 탐색. 교육논총, 9, 95-116.
- 이성은, 오은순. (2002). 문학중심 총체적 언어교육 활동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0, 167-199.
- 이성은, 황영미. (2003). 동시를 통한 총체적 언어교육이 아동의 다중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국어교육, 22, 305-334.
- 이숙재, 박인숙. (1999).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의 이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차숙, 노명환. (1995). 유아언어교육론. 서울: 동문사.
- 이항재, 한복연. (2000). 총체적 언어접근 활동이 유아의 문해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27-56.
- 장영숙, 최미숙, 황윤세. (2004). 교사경력 및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교사의 교육신념 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29-47.
- 정숙경. (2001a). 유치원 교사들의 문해습득에 대한 신념 및 실천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6, 69-103.
- 정숙경. (2001b). 총체적 언어접근과 유치원 유아의 문해지도 방안. 학생연구, 29, 97-115.
- 정숙경. (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해성 지도 접근방식 및 신념. 초등교육연구, 17(1), 101-126.
- 제경숙. (2002). 유아언어교육의 총체적 접근. 인문논총, 15, 347-365.
- 조정숙. (1997). 유치원의 문자언어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1), 113-138.
- 조정옥, 이달석. (2002). 총체적 언어접근의 저널쓰기가 유아의 쓰기능력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23(2), 1-33.
- 홍인숙. (2001).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환경: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ll, E. W., & Blachman, B. (1991). Does phoneme awareness training in the kindergarten make a difference in early word recognition and developmental spell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26(1), 49-66.
- Clay, M. (1975). *What Did I Write*: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DeBaryshe, B. D. (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20.
- Doane, D., & Seward, L. (2009). *Applied Statistics in Business and Economic*. Boston: McGraw-Hill Irwin.
- Freeman, E. B., & Hatch, J. A. (1989). Emergent literacy: Reconceptualizing kindergarten practice. *Childhood Education*, 66(1), 21-24.
- Goodman, K. S.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Harste, J. C., Woodward, V. A., & Burke, C. I. (1984). *Language Stories & Literacy Lessons*.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Kurkjan, C. M. (1994). *The mediation of literacy in selected Head Start Classro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 Schickedanz, J. A. (1986). *More than the ABCs: The early stages of reading and writing*.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Senechal, M., & Lefevre, J. A. (200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skill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2), 445-460.
- Smith, S. S. (1996). *A longitudinal study: The literacy development of 57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 Sulzby, E. (1985). Children's emergent reading of favorite storybooks: A developmental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4), 450-481.
- Teal, W. H., & Sulzby, E. (Eds.). (1986).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Norwood, NJ: Ablex.
- Yoo. (1996). *How early childhood teachers' beliefs reflect*

their use of the whole language and traditional approach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접 수 일 :
2009. 08. 19.
수정완료일 :